

‘휴대폰’ 사용 강좌 어르신들 무료교육 실시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정보화와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휴대폰 활용교육을 진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은 8월 13-21일 복지관 2층 컴퓨터교실에서 어르신 150명이 함께한 가운데 ‘KT 어르신 대상 휴대폰 사용법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KT전북서부 IT서포터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1:1 휴대폰 활용교육을 시행했다.

참가 어르신들은 교육을 통해 문자 메시지 보내기, 사진촬영 방법 등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교육 받았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문자보내기 경진대회’를 열어 5회에 걸쳐 배운 휴대폰 기능을 확인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무공 관장은 “앞으로도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보격차 해소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활·나눔 캠프 장애우들 송광사에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새로운 삶의 의욕과 재활의지를 북돋고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하모니가 펼쳐졌다.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정신원(원장 우우호)은 정신지체장애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한 여름캠프를 8월 20일 완주군 동상계곡에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물놀이와 개인별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우호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정신원 생활인들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욕과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는 좋은 기회였다”며 “그동안 우리 시설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함께해왔던 자원봉사자들과 보낸 시간이라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를 빌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차별 올바르게 인식 하자”

광주불교사암연합회·불교아카데미, 종교평화 위한 강좌 실시

개신교 교세가 강한 광주전남지역에서 종교차별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강좌가 열렸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전우희)와 함께 8월 22-23일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종교평화를 위한 강좌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사찰 및 신행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성오 스님은 격려사에서 “현재 종교편향과 불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이제는 불교인 하나하나가 불교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불교 호법전문활동가를 양성하고 조직화 하기위해 실시된 이번 강좌는 정웅기 처장(불교아카데미 상임연구원)의 ‘국가 복음화 전략과 민족문화경쟁전략’, 류상태 목사(예수중아리교회)의 ‘무례한 종교, 위험한 대한민국’, 박광서 대표(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의 ‘종교차별 금지



8월 22-23일 광주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열린 종교평화를 위한 강좌에는 1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개정법령의 이해와 실제’, 배병태 국장(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교차별 대응과 감시활동’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웅기 처장은 “보수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인의 삶에 개신교 세계관을 투영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운동의 총화라 ‘국가복음화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민족의 문화와 역사의 꺾히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불교 역할을 정리해야 불교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상태 목사는 “개신교가 배타적 구원관을 극복, 이웃종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격적인 선교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며, 배타적 유일신 개념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이어 불자들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인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서 교수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없이 선진국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헌법, 인권 수호에 공직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배려와 관용의 문화 확산’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불교가 인류역사에 이바지한 위상을 바로 인식하고, 과학과 미래, 생태, 평화의 종교로서 불교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여 국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선진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민망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병태 사무국장은 “시민들에게서 벗어나야 하며, 여론화가 필요하며, 법원에는 종교편향과 침해사태에 대한 공익소송의 필요, 국회를 향해서는 종교차별금지 관련 법률안 개정 위한 입법청원,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와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퀴즈로 풀어보는 종교차별 뒤집기, 탐פל 토론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전

부상감청자투각佛 법륜대(운장대) 완결봉안 해

동참접수 : 2009년 5월~ 9월 5일 | 정안식 : 2009년 9월 6일(일) 오전 10시 50분
도동산 성불사 ☎ 954-9848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요 합장 =

실용신인특허허가기술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사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림청자
□ 높 이 : 110cm
□ 원통폭 : 45cm
□ 밑받침폭 : 30cm
□ 무 게 :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현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봉안식)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우리지역 부부나혼자 이리불교대학 문운속 가름빈가합창단장

“자원봉사는 포교의 원천”

익산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가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장을 빛나게 하는 합창단이 있다. 익산지역 불교유일의 합창단인 이리불교대학 가름빈가합창단(단장 김진수, 회장 문운속)이다. 가름빈가합창단은 창단이후 20년간 매주 1회 이상 익산관운 사 이리불교대학에서 꾸준한 연습을 해왔다. 그 결과, 지금은 각

구준한 자원봉사활동이 포교 활동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믿기 때문이다.

익산시 ‘문화사랑봉사단’에서의 문화유산 해설활동도 두드러져 최근 익산미술사지 사리장업 특별전에서도 한달 간의 전시기간 중 해설을 담당해 주변의 칭송을 한 몸이 받았다.

늘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찬불



합창연습 후 함께한 가름빈가합창단 임원. 왼쪽에서 3번째가 문운속 회장

사람의 법회는 물론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초청 받는 단골손님이 됐다.

합창단은 매주 관음사 일요법회와 매월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의 일상법회와 군법당 법회 초파일 백중 등의 연중 행사를 비롯해 지역 대내외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가름빈가합창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불교의 인연법을 알고 실천하는 단원들의 열정.

아름다운 소리로 불보살님과 대중에게 공양하기 위해 음성공양의 원력으로 모인 단원들 하나하나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음률을 고르며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은 합창삼매 그 자체이다.

가름빈가합창단은 음성공양 외에도 매주 지역노인복지회관과 익산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칭송이 자자하다.

가름 부름처럼 생활해서인지 합창단원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날 줄 모른다. 합창단의 음성공양도 포교의 일환이라 믿고 무더위에도 연습에 열중하는 단원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롭고 화목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가름빈가합창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합창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다양한 찬불가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사암의 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있다. 합창단 운영의 특성상 많은 경비가 소요됨으로 인해 단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합창단의 규모가 늘어나면 교도소와 군법당의 합창공연 횟수도 늘리고 다양한 곳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줄 계획이다. 011-9814-5686

조동제 전북지사장



8월 21-22일 나주 심향사에서 열린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모습.

“즐거운 세상 믿거름 되어라”

나주 심향사, 농촌 어린이 전통문화 행사

나주지역 다문화가정 및 농촌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체험이 펼쳐졌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에서는 8월 21-22일 지혜나눔실천회(회장 김백경) 주최, 심향사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및 농촌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30여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부모님에 편지쓰기, 전통사찰 배우기, 전통문양 그리기, 구연동화(부모모은종경), 비누 만들기, 팽빙수 만들어 먹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이 진행됐다.

김백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적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즐거운 세상을 가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

문화가정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현(11) 어린이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지금은 친구, 동생들과 즐겁게 지내게 됐다. 특히 <부모모은종경> 그림자 구연동화를 보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칠월칠석” 아주 특별한 법회

26일 광주 법림사, 독거어르신 초청 행사 개최

불교의 전통명절 중 하나인 칠월칠석에 아주 특별한 법회가 진행돼 화제가 됐다. 광주 법림사(주지 무진)는 8월 26일 칠월칠석에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칠월칠석 기념법회와 함께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살바연예예술협회 회원인 서명희, 임금덕, 강명숙, 진달래씨 등의 대중가요와 민요공연, 그리고 각설이 공연이 이어져 참석한 독거노인들을 위안했다.



8월 26일 광주 법림사에서 열린 독거어르신 초청 행사 모습.

이날 참여한 독거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하는 문화적 소외의 대상으로 대해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집에서 사찰까지 한분씩 모시고 이동해 행사에 참여했다.

무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당이 종교적으로 엄숙한 공간이지만, 대중을 위해서는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매년 불교 명절에는 사찰에서 문화공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